

안전·경보시스템 ‘매우 열악’

조계종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결과 발표

도난에는 신경쓰고 화재에는 무관심...개선책 시급

주요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 대부분이 화재경보기 설치가 안 돼 있어 화재발생시 초기방적이 어렵고, 이들 중 상당수 사찰은 산림에 지나치게 인접해 산불로부터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문화부는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탁연)에서 ‘주요사찰 방재대책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사찰 방재대책현황조사’는 조계종 문화부가 강화 전등사, 김계

금산사, 구례 화엄사, 합천 해인사 등 보물급 목조건축물을 2중 이상 보유한 전국 32개 사찰을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안전선 설정 △소화전 배치 및 작동 △소방로 △경보시스템 △유관기관 대응 등 10여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열악한 항목은 ‘안전선’과 ‘경보시스템’이었다. 이 항목에 대한 32개 사찰 평균점수가 10점 만점에 각각 1.64와 2.66에 불과했다. 개심사·금산사·무위사·

송광사 등 18개 사찰은 산림과 인접해, 안전선이 없거나 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대상 사찰 대부분이 도난 방지시설만 갖추었을 뿐 화재경보기는 설치하지 않아 화재 조동진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13개 사찰의 경우 소방차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15분을 웃돌았다.

시설 노후로 인한 문제도 시정돼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범어사의 경우 소방수 배관시설이 낡아 평상시 잠가두고 있었고, 범주사는 배관 노

후화로 누수되는 용수에 대한 요즘 부담 책임을 둘러싼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마찰로 제한적으로 급수 받는 상황이라서 소방시설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방화림 조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화도 전등사의 경우 토착식생은 방화에 유리한 참나무류의 활엽수림이었으나, 근래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수림대가 인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문화부 조사단은 현황조사를 전통사찰에까지 확대 실시할 것과 문화재의 특수성에 입각한 초기탐지시설 강화 및 방수층 등의 설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방재매뉴얼 및 행동지침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

했다. 특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산지관리법에 방화시설 설치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재난대비에 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보보존위원회는 조사단의 대안에 대해 공감하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홍선 스님(직지사성보박물관장)은 “종단과 스님들이 화재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그 원인을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에서 찾았다. 또 낙산사 동종 복원을 위한 실측자료가 미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재 실측자료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양모 위원은 큰 사찰에 소방서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는 “문화재청 내에 방화전문가가 배치돼 방화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동국대 일산병원 영안실

‘재단이 운영’

6월 29일 개원하는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의 영안실 운영이 병원 직영 형태로 가닥을 잡았으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재단으로 결정됐다.

동국대 법인의 의료경영개선위원회(위원장 영담)는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무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6월 21일 확인됐다. 이는 영안실 대실료 수입은 병원이, 실제 돈이 되는 수익사업은 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재단이 영안실 운영을 독점하려한다는 비난여론을

대실료 수입은 병원이, 투명성 논란은 여전

피해 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일산불교병원 영안실은 개원초기 병원의 주요 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병원직영이나 재단 운영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그동안 재단의 일부 이사들은 “영안실 운영으로 재단이 수익을 내서 이를 다시 학교로 전입시키면 병원에서 직영한 것과 마찬가지”며 “재단이 직영해 전입하면 전입금 규모가 늘어나면 국고보조나 교육부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재단의 영안실 운영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동국대 교수회 관계자는 “재단이 영안실 운영에 관여하게 되면 수익규모나 운영전반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용수 기자

‘전방GP 총기사고’ 계기 군포교 중요성 확산

“군종교구가 장병들 정신적 의지처 돼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이 총기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의 빈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군불교위원장 성광·도영·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같은 신세대 장병들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곧 출범할 군종교구와 130여 군승의 역할이 크다. 종교적 해법을 통해 군 장병들이 갖는 극도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종교 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군 장병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할 상담요원 양성도 시급하다.

군포교 담당자들은 “불자가정 역시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모가 군인 자신들에게 보내주는 단주의 불경 등이 군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이 입대를 앞둔 자식들과 함께 사찰을 찾아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슬기롭게 군 생활을 마치는 지혜를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

강유신 기자

단주·불경 보내기 등 지속...상담요원 확보 시급

6월 19일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장병 8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충격적인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군종교구 출범을 앞둔 불교계가 일부 군 장병의 정신적 아노미 치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포교 담당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번 총기난사 사건을 급격한 사회 민주화 흐름을 근대 문화가 좋아가지 못하고 신세대 장병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군대문화의 획일주의와 전체주의의 충돌한 결과, 신세대가 기성 세대의 문화에 대해 공격적인 성향이 극렬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불교계가 군 장병의 정신적 의지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회에서 답답한 군부대로의 이동은 신세대 장병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충격을 준다. 불교는 군 장병들이 곧 터질 듯 위태로운 풍선과

한·일 북관대첩비 반환 합의 남·북

조선 스님 “8·15 이전 가져올 계획”

북관대첩비 반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관대첩비 반환의 마지막 변수였던 한일 정부간, 남북 당국간의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6월 20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양국 민간 차원에서 반환 문제가 거론된 지 10여년 만이다.

또 6월 21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당국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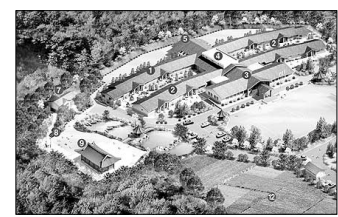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북관대첩비 반환을 주도하고 있는 한일불교복지협의회 조선 스님은 “남, 북, 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환을 합의한 만큼 곧바로 절차를 밟아 8월 15일 이전에 북관대첩비를 가져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관대첩비 민족운동중앙회 남측 대표인 조선 스님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은 3월 28일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북관대첩비를 북한으로 옮겨와 복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철주 기자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청사진 나와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조감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이 경기도 이천시에 건립 준비 중인 장애인생활터전 ‘자비복지타운’

김강진 기자

텐진 팔모 스님 내한 강연 잇따라

서양 여성 최초로 티베트 스님이 되어 33세의 나이에 히말라야 설산 동굴에서 12년간 수행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텐진 팔모 스님이 6월 28일 내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초청으로 내한한 텐진 팔모 스님은 ‘법과 사랑·나눔’을 주제로 서울 도선사(30일 오후 12시), 서울 봉은

사(7월 7일 오전 11시) 서울 불광사(10일 오전 11시) 서울 능인선원(18일 오후 1시) 등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김천 청암사(7월 5일) 청도 운문사(16일) 공주 동학사(21일) 등 비구니 강원에서는 비구니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02)928-0752 (02)722-2101 김지연 기자

수경사 아동 ‘안전조치’

그동안 영유아를 돌보면서 일부 아동학대 사례가 제기됐던 미인가 복지시설 서울 수경사문제의 관련해 조계종과 사회복지재단이 아동들의

신변확보에 나섰다. 종단과 재단은 아동보호시설과의 연계와 대화를 통해 수경사 아동들의 신변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여타 불교시설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6월 21일 밝혔다. 김강진 기자

건축, 토목, 문화재, 사찰, 단청공사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면 과거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그렇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옛 도시..

서원경에서 문화재 공사의 새로운 기운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瑞都建設株式會社 代表 曹奉鉉

忠北 清州市 上黨區 龍岩洞 1558 1층

전화: 043)294 - 6700 / 전송: 043)294 - 5434 / H·P: 011 - 463 - 1718